

2025년도 주 의회 회기 정책 업데이트

우리가 처한 현실: 간병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권한 강화

SEIU Local 2015 조합원들은 모든 장기 간병 노동자가 번영하는 데 필요한 임금, 복리후생, 자원 및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간병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 지역, 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노동조합, 장기 간병, 그리고 노동 가정을 공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에 맞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에서 수십억 달러를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간병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 보호를 박탈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요양원 인력 배치 규정을 되돌리며,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행정명령과 연방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장기 간병 노동자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많은 것이 걸려 있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지역사회와 일터에서 함께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맞서 싸워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종, 배경, 지역을 초월해 단결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지키고, 간병 제공자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부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우리는 IHSS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주 예산 삭감안에 맞서 싸워 이를 저지했습니다. 그 결과, IHSS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보장하고,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가정가 간병 서비스를 지켜냈으며, 메디칼 수혜자들에게 가혹한 자산/재산 한도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7월,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수백만 명의 가정 간병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보호를 폐지하기 위해 공정 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을 개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했고, 우리의 옹호 활동 덕분에 뉴섬 주지사가 SB 156 법안에 서명하여 이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SB 156 요약

과거에 우리가 쟁취한 노동자 보호 장치들 예를 들어 IHSS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주간 최대 근무시간, 그리고 이용자 간 이동 시 유급 이동시간 등은 연방법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SB 156은 이러한 권리를 주법에 명문화하여 캘리포니아 가정 간병 노동자들을 보호합니다.
SB 156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 ◆ 가정 간병 노동자의 노조 권리 보호
- ◆ 노조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장
- ◆ 주간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보호 유지
- ◆ 교섭을 거부하는 카운티에 대한 책임 추궁 능력 강화
- ◆ 간병 제공자의 급여와 조합비 공제의 안정성 보장



SB 156은 간병 제공자를 보호하고 우리 노조를 강화합니다

공정한 업무량 규정과 초과근무 보호

- ◆ IHSS 제공자들을 위한 주 66시간 근무 상한을 보호합니다.
-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이 적용되도록 보장합니다.
- ◆ 수혜자의 승인된 서비스 시간을 줄이지 않고, 제공자가 주당 최대 7시간까지 이동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다수의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는 제공자, 농촌 지역 또는 복잡한 필요를 가진 수혜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등 가족 간병인이나 특별한 상황의 제공자에게는 예외를 유지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제공자는 월 최대 3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 카운티는 간병 제공자와 수혜자에게 이러한 제한과 예외에 대해 알리고, 간병이 줄어들지 않도록 서비스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간병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IHSS 제공자의 개인 정보가 오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조직화, 대표 활동, 조합원 지원을 위해 우리 노조가 해당 정보에 대해 배타적인 접근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외부의 공격이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동시에 우리 노조가 주 전역의 간병 제공자들과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카운티와의 더 강력한 교섭력

카운티가 우리 노조와의 계약 체결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IHSS 노동자들과 단체교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 조정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사실조사 이후에도 합의를 거부할 경우, 주정부는 해당 카운티의 IHSS 예산의 10%를 매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섭 자리에서 우리를 무시하려는 카운티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부과하는 장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급여 및 노조 조합비 징수

SEIU Local 2015가 필요할 경우 주정부와 협력하여 급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지급 차질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 자발적 퇴직연금 납입, 노조 조합비와 같은 승인된 공제를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제공자들이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노조가 캘리포니아 전역의 장기 간병 노동자들을 위한 기준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흑인, 라틴계, 백인 장기 간병 노동자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설 때 우리가 힘을 우리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2025년 정책 승리는 우리의 일터, 간병 산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IHSS 노동자들을 위한 주 전역 단체교섭 법안(AB 283)이 주 및 연방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올해는 보류되었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이 안건이 다시 논의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 기준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 ◆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며, 흑인 및 라틴계 공동체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선거 조작 대응법(발의안안 50)**을 통과시키는 것
- ◆ 카운티 차원에서 강력한 IHSS 계약을 체결하는 것
- ◆ 캘리포니아 양질의 간병을 위한 노사관리협의회(LMC)를 통해 **최초의 요양원 통합 노조 계약을 협상**하는 것
- ◆ 새로운 메디칼 상한율을 옹호하여, 주 및 연방의 요양원 자금을 노동력 강화, 노동자 우선, 그리고 간병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 ◆ **2026년에 친노동자·친간병 성향의 주지사**를 선출하여, 주 재정이 어려울 때에도 장기 간병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 자금을 확대하고, IHSS 노동자들을 위한 주 전역 단체교섭을 현실화하는 것

앞으로의 길을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긴박함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낸 모든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연대와 용기로 맞서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넘어 함께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조합원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